

이주 시대 독일의 사회:평행사회와 인종적 계층화

독일인과 터키인들 간의 통합적 삶(Zusammenleben)의 상이한 개념에 대한 경험연구의 의미

디르크 할름 (두이스부르크 대학교 터키 연구센터 이주문제연구 전문 연구원)

독일에서 이른바 “평행사회(Parallelgesellschaft)”가 형성되고 있다는 2000년대 중반부터 가장 자주 언급된 주장은, 독일에서 이민자들의 통합은 실패했다는 시각에 기반한다.¹ 개념의 성립에서부터 2004년부터 일어난 광범위한 논쟁에 이르기까지 이 개념은 이슬람을 사회적 비통합(Desintegration)의 원인 혹은 특징으로 보는 시각을 함축한다. 2004년 말 경에는 이민 현실을 서술하는 개념으로서의 “평행사회”라는 말은 또한 동시에 언론에서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개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히 평행사회의 존재에 대한 주장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다원성을 부정하려는 목적에 봉사하게 된다고 역설했다.²

이 논쟁은 그간의 이민 연구와 관련해 한편으로는 현상적인, 다른 한편으로는 규범적-정치적인 두 가지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지고 있다. 즉,

1. (터키 이민자들의) 평행사회가 존재하는가?
2. 평행사회의 존재란 사회 구성원들의 전사회적 통합을 위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1 특히 2004년 11월 2일 이슬람에 비판적인 언론인 Theo van Gogh가 네덜란드에서 살해된 이후, 이 개념은 정치와 언론을 통해 일종의 유행어가 되었다. 2004년 11월 4일 자 <Welt>지에 실린 Jan Kanter의 칼럼을 보라: “네덜란드 사회의 일종의 금기에 대항한 그의 태도는 가히 전설적이다. 네덜란드 인들은 그의 공격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는 이러한 반응을 다른 큰 규모의 집단, 즉 네덜란드 사회 내부에서 자신들만의 평행사회를 형성했던 집단들에게도 또한 요구했기 때문에, 그는 종내 암스테르담의 한 거리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Heitmeyer(1996)는 이 개념을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이슬람 근본주의에 관한 연구에서 해석적 방식으로 처음 사용하였고, 이를 가지고 터키 출신 청소년들의 광범위한 집단에서 발견되는 독일 사회와 전반적으로 접촉이 없는 삶을 서술하고 있다.

2 가령 2004년 11월 23일자 <Berliner Zeitung>에 실린 Arno Widmann의 칼럼을 보라.

이 글은 위 질문들에 대해 경험 연구에 기반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험 연구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터키연구센터재단(Stiftung Zentrum für Türkeistudien)에서 행해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거주하는 터키 출신 성인 이민자들의 생활상태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에 근거한다. 조사는 매년 무작위로 추출한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 다음과 같은 사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전제로 한다. 즉, 평행사회와 통합(Integration)이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양 개념들이 어떻게 이민 연구를 위해 설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자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1. 평행사회와 통합에 관한 관계에 대해 - 이론적 고찰

Thomas Meyer(2002)는 이민자 공동체 내부의 평행사회적 구조의 존재와 관련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 인종적-문화적 및 문화적-종교적 동질성
- 생활세계와 시민사회 및 전반적인 영역에서 거의 전적인 경제적 격리(Segregation)의 가능성
- 비이민 다수사회의 제도들에 상응하는 거의 전적인 이민자 사회 내 동일한 제도의 양립
- 형태적인 측면에서의 자발적 격리
- 위의 특징들이 충족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거주공간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격리

이러한 정의는 평행사회 구조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잣대를 너무 높이 설정하고 있다. 또한 경험 연구에 의거한 검토가 없다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파악된 이민자들에 의한 평행사회란 적어도 독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정식화된 기준에 의해 측정한다면, 격리 가능성이란 특히나 이민자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대안적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고려할 때 상당히 제한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표들의 설계란 하나의 동적인 고찰을 할 때에 의미가 있다. 즉, 평행사회로 향하는 발전과정이 존재하는가, 혹은 평행사회로부터 탈피하는 발전과정이 존재하는가?

위에 제시된 평행사회의 정의와 이민자 통합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Meyer의 정의는 통합적 삶의 방식, 즉 “어떻게(Wie)”라는 형태만을 초점에 놓고 있지, 통합적 삶(혹은 분리된 삶)의 형태가 소수자 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배제과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초점을 거의 맞추고 않고 있다. 이를 통해 평행사회라는 개념은 특히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참여의 폭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통합 혹은 비통합이라는 관점을 통해 서술되는 측면과 관련해 단지 하나의 단면만을 포괄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참여의 차원이야말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평행사회의 사회적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참여의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민 연구는 이민자들의 통합과 관련한 일련의 모델을 개발해 왔다. 이 개념과 결합해서 각각 특정한 통합과정의 이론이 존재한다. 이에 관한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지만 크게 두 가지 기본 형태로 정리될 수 있다. 즉 가능한 통합과정을 문화동화(Akkulturation, 이민대상 사회의 문화적 표준의 수용)와 사회적 참여 간의 긴장관계의 장에 위치짓거나³ 혹은 이 통합과정을 출신국 혹은 이민대상국과의 거리상의 원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서술하는 방식이 있다.⁴ 양 모델로부터 도출되는 통합과정이란 각각의 상이한 모델에 대응하는 이론적 가설에 기반한다. 행동지향과 참여기회란 적어도 이론적-개념적인 측면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Heitmeyer에게서 포괄(Inklusion) - 문화적 차이를 보존하면서 평등한 참여가 가능하게 됨 - 과 동화(Assimilation, 출신국 문화를 포기한 상태에서 균등한 참여에 이르는 것)란 적어도 이론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양 선택 대안이라면,⁵ Esser에게서 근거를 이루는 이론적 가정이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험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이란 단지 동화라는 틀에서만 가능하다. 즉, 문화통합, 지위점유(Plazierung), 상호작용 그리고 동일화의 성공적인 과정은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 이민자 사회 내부에서는 적절한 지위점유가 충분한 수를 가지고 제공되지 않기 때문

3 Heitmeyer/Kühnel/Strobel 1999, S. 5; Sen/Sauer/Halm 2001, S. 214와 비교하라. 문화동화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특히 Berry 1992를 보라.

4 Nauck/Steinbach 2001; Esser 2001와 비교하라.

5 Heitmeyer/Kühnel/Strobel 1999, S. 5.

에, 특히 성공적인 지위 점유란 근본적으로 단지 이민대상 사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과정 또한 문화동화 및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통해 곧이어 새로운 고향과의 동일화 과정과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민자 사회에서 이민자들은 오히려 인종적 이동성 결여(Mobilitätsfallen)에 처할 점증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들은 열악하거나 기껏해야 중간적인 지위 점유에 이를 수 있을 뿐이다.⁶ 특히 문화통합과 위치점유 과정 간의 “분리(Entkoppelung)”란 Esser에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⁷

특히 양 모델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이민정책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나 그 사회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참여기회를 위해 평행사회 구조의 성립 결과를 평가하는 데에 이러한 차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다르게 정식화하자면, 다문화 사회에서 인종적 계층화(ethnische Schichtung)⁸의 성립이라는 것이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독일에서 이와 관련한 기존의 경험 연구 결과는 이러한 과정이 불가피함을 말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Kecskes는 쾰른에서 터키 이민가정 출신 청소년들의 사회 네트워크를 연구한 바 있다. 그는 여기에서 청년기 연령대에 각인된 점증하는 인종적 폐쇄(ethnische Schließung)라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이 내부에서도 역시 매우 다양한 관점, 삶의 양식 그리고 정체성들이 확립된다.⁹ 그러나 중국적으로는 청년들의 대다수의 지위란 자신들의 공동체 내부의 지위점유 시스템 속에만 국한될 뿐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시스템이란 이민대상 사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저 주변적인 지위만을 가능케 할 따름인 것이다. 다수의 터키 청소년들은 어떠한 의미에서건 동화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 Kecskes는 Esser의 경우에서처럼 “인종적 이동성 결여”¹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왜냐 하면,

인종적 위치체계는 이민대상 사회의 위치체계보다 덜 분화되어 있으며 이 체계는 (전체 사회체계 내에서) 저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 이 체계

6 Esser 2001, S. 35-36

7 Esser 2001, S. 63

8 Esser 1980에 따름. 인종적 계층화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집단들의 동등성이 존재하는 한편, 동시에 인종적 집단들 간에는 체계적이고 수직적이며 사회적인 비동등성이 존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9 Kecskes 2001, S. 180.

10 Wiley 1973

내부에서는 상층으로 신속하게 도달할 수는 있지만, 그래봤자 이는 그저
항상 (전체 사회체계 내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상응할 따름이다.¹¹

Glatzer 또한 이탈리아와 터키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통합상태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사회구조적(직업 취득, 가정 수입, 아
비투어 합격자 비율, 자가주택 소유비율)이고 사회문화적 참여(독일어
구사 능력, 독일 매체 수용도, 낯선 것의 지각능력)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양자가 동일한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¹²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의 터키 평형사회? 하나의 시계열 조사

독일에서의 터키 평형사회의 발전이라는 물음에 대해 이 글의 저자
들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거주하는 터키 이민자 출신의 상호
문화적 통합적 삶에 관한 시계열 조사를 통해 답변하려 했다. 여기에
서 평형사회의 존재에 관한 Meyer의 지표들은 다양한 척도들을 통해
설계되었다.¹³

터키연구센터재단은 1999년부터 매년마다 대표적으로 1,000명의 성
인 터키 출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거 조건, 상호 문화적 접
촉, 차별 경험 그리고 자민족의 인프라 구조의 이용에 관해서 설문조
사를 수행해 왔다. 이 자료들은 Meyer에 의해 발전된 평형사회 지표를
종교(문화적 동질성), 독일인들과의 접촉(생활세계에서의 격리), 조직화
정도(제도의 양립), 차별(격리의 자발성) 그리고 인종적 거주공간 형성
(거주공간 격리) 등의 척도를 통해 설계하는 데에 적합하다.

이 조사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국한되지만, 적어도 터키
출신 이민자들의 3분의 1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거주하기 때
문에 그 기본적인 경향에서 보았을 때 조사 결과를 또한 전 독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11 Kecskes 2001, S. 180.

12 Glatzer 2004, S. 47-48.

13 Halm/Sauer 2004. 다음 장은 2004년의 데이터에 의거한 연구에 기반해 쓰여졌다.

시계열 조사를 통한 결과를 보았을 때 독일인과 터키인 간의 평행적 사회구조의 형성이라는 тезис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사 기간 내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을 보면 사회적 혼합이 근소하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다. 물론 조사 기간 내에서 보면, 이슬람과의 동일시와 또한 그에 따른 집단의 종교문화적 동질성 및 차별의 지각 또한 증대되었다. 다음은 조사 결과들의 세목을 요약한 것이다.

종교적 동질성

예상대로 터키 이민자의 95%를 이루는 대다수는 무슬림에 속한다. 여기에서 수니파는 90%를 이룸으로써 명백한 다수파를 점하고, 알레비 파는 9%를 이루고 있으며, 매우 소수만이 시아파에 속한다. 이러한 분포는 평행사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서 터키인들이 종교적-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입증한다. 조사대상 중 대다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차원에서도 이슬람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절반(50%)는 자신을 다소간 종교적이라고 답했으며, 약 5분의 1(22%)은 매우 종교적이라고 답변했다. 24%는 자신이 별로 종교적이지 않으며, 4%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각각의 범주 간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민자들에게서 종교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우 혹은 다소간 종교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2004년 조사에서 72%에 달하는데, 2000년 조사에서는 57%였었다. 이러한 경향이 9·11 사태와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에서의 전쟁의 결과이며 어느 정도는 이슬람으로의 강요된 자기설정(Selbstpositionierung)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지 추측될 뿐이다. 수니파 이슬람에 대다수가 속한 것을 고려한다면 독일에서의 터키 사회는 동질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강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조사기간 중에 선형적인 형태로 명백히 증가했다.

생활세계의 격리

평행사회에 관한 다른 특징으로서 생활세계 및 시민사회에서의 격리란 여기에서 인종 상호간의 사적인 접촉의 정도에 의해 계측된다. 조사 대상의 44%는 독일인과 밀접하고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매일(23%) 혹은 자주(20%) - 즉,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분의 1정도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독일인들과 사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35%는 단지 적은 접촉을, 16%는 드물게(일 년에 몇 번 정도), 그리고 19%는 독일인들과 접촉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를 기준으로 비교하자면, 작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호문화적인 친밀관계가 증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민사회의 격리

독일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터키 이민사회에서 사회조직과의 연결이란 활발하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간 증대되는 추세를 보인다.¹⁴ 이민자들은 한 편으로는 다수사회의 상호매개적 (즉, 독일과 터키 공통의) 조직에 속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자들에 의해 설립된 조직에 속하기도 한다. 근간에는 거의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터키인들의 조직과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이 평행사회의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독일사회에 존재하는 기관들에 상응해서 양립하는 것일까?

조사대상자 중 도합 42%는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았다. 19%는 단지 하나의 독일인 단체에, 18%는 하나의 독일 단체 및 다른 하나의 터키 단체에 속했다. 그러므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3분의 1 이상(37%)이 하나의 독일인 단체의 성원이 되는 셈이다. 독일 및 터키 단체에 속한 19%의 사람들 외에, 22%는 단지 하나의 터키인 단체에 가입했다. 그 전년도 해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2002년에 약간 그 숫자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03년과 2004년에는 터키 단체에만 속한 회원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독일 및 터키인 단체나 조직에 속하는 회원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된다. 또한 독

14 Diehl 2001.

일인 조직의 회원 숫자 또한 약간 증가했다. 17%의 비율로 가장 많이 속해 있는 독일 조직은 노조이다. 그 다음을 따르는 것은 16%로 스포츠 동호회이다. 노조 가입은 전통적으로 모든 “손님 노동자 출신국 (Gastarbeiternationen)” 사람들에게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터키 조직만을 보면, 그 비중이 주로 문화와 종교적 영역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터키 조직에 가입한 중심적인 동기는 독일 조직들이 충족시킬 수 없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터키 조직들은 하나의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이지 독일 기관에 상응하는 동일한 양립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차별 경험 - 자발적 격리

통합이란 이민대상국의 사회가 이민자들을 또한 자원(배분)과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배제의 자발성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는 바로 차별에 대한 지각이다. 조사대상자 중 도합 77%는 일상 생활 속에서 독일인 및 다른 외국인들에게서 불공정한 취급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11%는 어떤 특정한 삶의 영역에서, 66%는 이미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그랬다고 응답했다. 1999년도 조사에서 차별 비율은 65%에 달했는데 52%는 여러번, 14%는 한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2001년에는 이 부분이 71%로 증가했고, 2003년과 2004년에는 80%에 달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지각 증대가 이민자들이 느끼고 지각하는 차별의 정도가 증가한 것인지 혹은 불평등한 취급이 실제로 증대한 것인지 여부는 여기에서 설명될 수 없다. 그럼에도 조사 기간대 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일단 명백하게 증가했고 작년부터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 놀랄만하도록 높은 차별에 대한 지각 정도가 확인된다. 물론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증대되는 종교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2001년 9·11 사태에서 비롯된 이슬람과 관련된 논쟁과의 맥락과 결부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가장 자주 차별을 느낀다는 영역은 일반적으로 불충분한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이거나 사회적 경쟁과 갈등이 크게 지배하는 곳이다. 조사대상 중 약 절반에 달하는 이민자들은 직장에서(57%), 집을 구할 때(49%), 그리고 구직 시(48%) 차별당했다고 응답했다.

거주공간의 격리

반 이상(58%)의 응답자들은 주로 독일인들이 사는 지역에 거주한다고 답변했다. 15%는 독일인과 터키인이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는 지역에, 5분의 1은 주로 터키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에 산다고 응답했다. 주로 터키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산다고 응답한 21%의 비율은 그러나 적어도 몇몇 도시 지역에서는 인종적으로 밀집된 거주지역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2004년도의 조사결과를 전년도의 조사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한 경향이 눈에 띄는 것은 아니다. 이 조사디자인이 인과관계로 해석될 수 없다는 단서 하에서 말한다면, 거주지역의 인종적 구성과 거주관계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간에 성립하는 맥락의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독일인 거주지역에서 사는 응답자는 터키인 거주지역에서 사는 응답자보다 더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거주공간의 분리가 항상 자발적인 격리를 의미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이민자 지역이란 대개 열악한 거주환경에 놓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족도란 그간 인종적 구성 비율뿐 아니라 각각의 거주지역의 일반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¹⁵

3. 평형사회 소속구성원들의 통합 전망

그렇다면 어떻게 위에서 서술된 특성들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터키 이민자 사회의 개인들에게 분포되어 있을까? 어느 정도로 개별 집단들은 실질적으로 평행적인 하위사회(Subgesellschaft)와 같은 것을 형성하고 있을까? 터키 평형사회의 구성원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들의 통합을 위한 전망을 연구하기 위해 여기에서 사용된 지표들에 대해 한계치(Grenzwerte)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한계치를 벗어나는 경우 조사대상자들은 격리되거나 혹은 격리되지 않은 것으로 정의된다.¹⁶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단지 1%에 달하는 적은 집단들만이 총 다섯 가지 평행사회를 이루는 지표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의된 격리

15 Friedrichs/Blasius 2000, S. 195.

16 다음과 같은 지표들은 격리의 특징으로서 지시된 영역들을 위해 정의되었다. 종교성: 매우 그리고 다소간 종교적임. 생활세계: 독일인들과 사적인 관계가 없거나 드물. 시민사회: 오직 터키 모임을 통해서만 조직화됨. 격리의 자발성: 차별 경험 없는 경우. 주거공간: 주로 터키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삶.

한계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의 조사대상자들이 네 가지의 지표에서, 18%가 세 가지의 지표에서 이 한계치를 벗어났다. 3분의 1 가량이 두 가지 영역에서, 그리고 동일한 비율의 대상자들은 한 가지 영역에서 격리 한계치를 넘어섰다. 대략 10명 중 한 명의 터키 출신 이민자들은 어느 한 가지의 지표에도 해당되지 않아 격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 개 이상의 영역에서 한계치를 벗어난 것으로 드러난 조사대상자들은 잠정적으로 격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집단으로, 두 개 이하의 영역에서 한계치를 벗어난 사람들은 격리되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에 속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격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인 77.5%, 그리고 경향적으로 보아 격리된 것으로 분류될 수 있고 점차 평행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인 22.5%이다.

경향적으로 평행사회적 구조 내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단은 60세 이상의 이민자들이며 이들에게는 부족한 독일어 구사 능력이라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독일어 구사 능력과 직업의 지위는 격리와 가장 강한 연관성을 지닌다. 그러나 연령과 체류기간, 독일에서 학교를 다닌 주와 정규 학교교육, 직업의 지위와 가계수입 또한 격리와 연관성을 가진다. 남성과 여성 간의 성차는 반대로 별 다른 변수가 되지 못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섯 가지 영역에서 적어도 세 가지의 평행사회적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진다. 특히 60세 이상일수록 이러한 비율은 바로 아래 연령대보다 큰 차이를 가지고 매우 높아진다. 이에 상응하여 이민 1세대는 격리된 사람들의 범주에 과도한 비율로 빈번하게 속하게 되며, 또한 성인이 된 후 독일로 건너 온 이민 2세의 결혼파트너들 또한 두드러지게 포착되는데, 여기에서 연령대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독일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2세대들은 평행사회 구성원으로 속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격리와 독일어 구사 능력 간의 관련성이다. 매우 부족한 혹은 다소간 부족한 독일어 구사능력을 가진 경우 능숙하

거나 매우 능숙한 독일어 실력을 가진 경우에 비해 평행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갈 개연성이 매우 높다. 평행사회의 삶으로 향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또한 독일에서 취득한 정규교육 수준 및 직업적 위치를 들 수 있다. 적은 정규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노동자로 종사하는 이민자들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이민자들이나 사무직 종사자들보다 격리된 사람들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에 상응해서 낮은 소득수준의 이민자들은 높은 소득수준의 이민자들보다 평행사회의 구조로 이동하도록 미리 조건지워져 있는 것이다.

4. 결론과 토론

우리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은 증가하는 종교성이 평행사회를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라는 점인데, 이는 조사기간 중 실질적으로 평행사회적 구조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일직선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몇 년 간의 이슬람과의 대화와 무슬림의 통합이라는 주제에 부여된 중요성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다른 나머지 지표들은 평행사회적 구조의 발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물론 평행사회 속에서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은 직업 지위와 소득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평행사회 구조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은 부족한 독일어 구사능력과 열악한 교육수준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참여기회를 가지고 있다. 물론 격리되지 않은 사람들의 분산도는 적은데, 이는 일반적으로 적은 참여수준에 기반하고 있을 터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사 데이터에 의하면 문화통합은 사회적 지위점유, 즉 통합을 위한 참여라는 차원의 맥락에 놓여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기 때문에, 인종적 계층화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젊은 이민자와 새로운 이민자들의 능력배양에 있다. 동시에 우리가 조사한 집단들을 보면, 의식적인 결정에 근거한 이민대상 사회로부터의 퇴각으로 이해된 격리 혹은 평행사회의 삶이란 터키인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참여의 결여라는 맥락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또한 보여준다. 오히려 자신을 독일과 동일시하고 이민대상사회에 통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점유로 나아가지는 않은 많은 수의 터키 이민 출신자들이 존재한다. 매우 강하게 단순화시켜 표현하자면, 여기에 소개된 데이터들은 터키 이민자들의 통합의 경우 그 당사자들의 의지보다는 (통합을 위한)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 Berry, John W., Acculturation and Adaption in a New Society. In : International Migration 30 (1992), S. 69-85.
- Diehl, Claudia, Die Partizipationsmuster türkischer Migranten in Deutschland: Ergebnisse einer Gemeindestudie. In: Zeitschrift für Ausländerrecht und Ausländerpolitik, Heft 1/2001, S. 29-35.
- Esser, Hartmut, Integration und ethnische Schichtung. Gutachten für die Unabhängige Kommission "Zuwanderung".
- Friedrichs, Jürgen/Jörg Blasius, Leben in benachteiligten Wohngebieten. Opladen 2000.
- Glatzer, Wolfgang, Integration und Partizipation junger Ausländer vor dem Hintergrund ethnischer und kultureller Identifikation. Ergebnisse des Integrationssurveys des BiB. In: Materialien zur Bevölkerungswissenschaft, Heft 105c, 2004.
- Halm, Dirk/Martina Sauer, Das Zusammenleben Deutschen und Türken in NRW. Entwicklung einer Parallelgesellschaft? In: WSI-Mitteilungen 10/2004, S. 547-553.
- Hämmig, Oliver, Zwischen zwei Kulturen. Spannungen, Konflikte und ihre Bewältigung bei der zweiten Ausländergeneration. Opladen 2000.
- Heitmeyer, Wilhelm, Für türkische Jugendliche in Deutschland spielt der Islam eine wichtige Rolle. Erste empirische Studie: 27 Prozent befürworten Gewalt zur Durchsetzung religiöser Ziele. In: Die Zeit, 23.08.1996.
- Heitmeyer, Wilhelm/Wolfgang Kühnel/Rainer Strobel, Junge Aussiedler zwischen Assimilation und Marginalität. Abschlussbericht an das Ministerium für Arbeit, Soziales und Stadtentwicklung, Kultur und Sport NRW. Düsseldorf 1999, S. 5.
- Meyer, Thomas, Parallelgesellschaft und Demokratie; in: Meyer, T./R. Weil (Hrsg.): Die Bürgergesellschaft. Perspektiven für Bürgerbeteiligung und Bürgerkommunikation. Bonn 2002, S. 343-372

- Kecskes, Robert, Die starken Gründe unter sich zu bleiben. Zur Begründung und Entstehung ethnisch homogener sozialer Netzwerke unter türkischen Jugendlichen. In: Zeitschrift für Türkeistudien 1/2 2001, S. 161-185.
- Nauck, Bernhard/Anja Steinbach, Intergeneratives Verhalten und Selbstethnisierung von Zuwanderern. Gutachten für die Unabhängige Kommission "Zuwanderung".
- Sen, Faruk/Martina Sauer/Dirk Halm, Integration oder Abschottung? Zur Situation türkischer Zuwanderer in Deutschland. In: Zeitschrift für Ausländerrecht und Ausländerpolitik 5/2001 (Nomos, ISSN 721-5746), S. 214-220.
- Wiley, Norbert F., The Ethnic Mobilty Trap and Stratification Theory. In: Peter I. Rose (Hg.): The Study of Society. An Integrated Anthology. 3. Aufl. New York 1973, S.400-411.

Parallelgesellschaft und ethnische Schichtung - Zur empirischen Bedeutung unterschiedlicher Konzepte des Zusammenlebens von Deutschen und Türken

Dr. Dirk Halm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Migrationsforschung
Zentrum fuer Tuerkeistudien Universitaet Duisburg

Die vermeintliche Entwicklung von "Parallelgesellschaften" in Deutschland ist seit Mitte dieses Jahrzehnts das am häufigsten vorgebrachte Argument für die Sicht, dass die Integration von Zuwanderern in der Bundesrepublik misslungen sei.¹ Von Beginn an bis zur breiten Debatte ab 2004 impliziert der Begriff den Islam als Ursache oder Merkmal gesellschaftlicher Desintegration. Ende 2004 erfuhr die "Parallelgesellschaft" als Konzept zur Beschreibung der Zuwanderungswirklichkeit aber auch öffentliche Kritik. Die Gegner argumentierten insbesondere, die Behauptung der Existenz von Parallelgesellschaften diene zuvorderst dem Zweck der Abqualifizierung gesellschaftlicher Pluralität.²

Zwei Fragen an die Migrationsforschung wirft die Debatte indessen

1 Insbesondere nach der Ermordung des islamkritischen Journalisten Theo van Gogh in den Niederlanden am 2. November 2004 erlebte der Begriff eine starke Konjunktur in Politik und Medien. Siehe etwa den Kommentar von Jan Kanter in der "Welt" vom 04.11.2004: "Seine [van Goghs, D.H/M.S.] Respektlosigkeit gegen die Ikonen der niederländischen Gesellschaft war beinahe legendär. Die Niederländer waren trotz seiner Provokationen stolz auf van Gogh. Letztlich starb er jetzt auf einer Straße in Amsterdam, weil er diese Toleranz auch von einer großen Bevölkerungsgruppe einforderte, die innerhalb der niederländischen Gesellschaft eine eigene, eine Parallelgesellschaft entwickelt hatte." Heitmeyer (1996) verwendet den Begriff erstmalig in seiner Studie zum islamischen Fundamentalismus unter Jugendlichen in interpretativer Weise und beschreibt damit das zur Aufnahmegesellschaft weitgehend berührungslose Leben einer großen Gruppe türkeistämmiger Jugendlicher.

2 So z.B. Arno Widmann in seinem Kommentar in der "Berliner Zeitung" vom 23.11.2004.

unmittelbar auf, einerseits eine phänomenologische, andererseits eine normativ-politische:

1. Gibt es eine (türkische) Parallelgesellschaft?
2. Was bedeutet die Existenz einer Parallelgesellschaft für die gesamtgesellschaftliche Integration ihrer Angehörigen?

Der vorliegende Text versucht eine empirisch fundierte Antwort auf diese Fragen unter Rückgriff auf Befragungsdaten der Stiftung Zentrum für Türkeistudien aus den Jahren 1999-2004 zu den Lebenslagen erwachsener Türkeistämmiger in NRW. Jährlich wurden 1000 Personen per Zufallsauswahl telefonisch befragt.

Die Beantwortung beider Fragen setzt zunächst die Definition dessen voraus, was unter einer Parallelgesellschaft und unter Integration zu verstehen ist, wie beide Konzepte durch die Migrationsforschung operationalisiert werden können und wie sie sich zu einander verhalten.

1. Zum Verhältnis Parallelgesellschaft und Integration - theoretische Überlegungen

Thomas Meyer (2002) schlägt fünf Indikatoren für die Existenz parallelgesellschaftlicher Strukturen in Migrantengemeinschaften vor:

- ethno-kulturelle bzw. kulturell-religiöse Homogenität,
- nahezu vollständige lebensweltliche und zivilgesellschaftliche sowie weitgehende Möglichkeiten der ökonomischen Segregation,
- nahezu komplette Verdopplung der mehrheitsgesellschaftlichen Institutionen,
- formal freiwillige Segregation,
- siedlungsräumliche oder nur sozial-interaktive Segregation, sofern die anderen Merkmale alle erfüllt sind.

Diese Definition legt die Messlatte für das Vorliegen parallelgesellschaftlicher Strukturen ausgesprochen hoch. Auch ohne

empirische Prüfung kann man davon ausgehen, dass Parallelgesellschaften von Zuwanderern zumindest in Deutschland in diesem Sinne nicht existieren. Die Möglichkeiten zur Segregation sind, gemessen an den oben formulierten Kriterien, doch eher begrenzt, insbesondere was die Bildung alternativer Institutionen der Migrantengesellschaft betrifft. Eine Operationalisierung dieser Indikatoren ist aber für eine dynamische Betrachtung sinnvoll: Gibt es eine Entwicklung hin zur oder weg von der Parallelgesellschaft?

Wie verhält sich die oben gegebene Definition von Parallelgesellschaften zur Zuwandererintegration? Meyers Definition fokussiert die Form, das "Wie" des Zusammenlebens, weniger die Frage, ob die Form des Zusammenlebens (oder Getrenntlebens) mit einer sozialen, ökonomischen und kulturellen Benachteiligung der Minoritätengruppe einhergeht. Damit umfasst der Begriff der Parallelgesellschaft nur einen Ausschnitt dessen, was durch Integration bzw. Desintegration beschrieben wird, insbesondere indem er den Umfang der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Teilhabe ausblendet. Diese Teilhabedimension muss aber berücksichtigt werden, wenn es um die Einschätzung der gesellschaftlichen Folgen von Parallelgesellschaften geht, da sie der wohl wichtigste Bestandteil gesellschaftlicher Integration ist.

Die Migrationsforschung hat eine Reihe von Modellen entwickelt, die die Integration von Zuwanderern beschreiben sollen. Verbunden mit diesen Konzepten sind jeweils spezifische Theorien des Integrationsverlaufs. Trotz einer Fülle unterschiedlicher Modelle lassen sie sich auf zwei Grundtypen reduzieren: Entweder werden mögliche Integrationsverläufe im Spannungsfeld von Akkulturation (also die Übernahme kultureller Standards der Aufnahmegesellschaft) und gesellschaftlicher Teilhabe verortet³ oder aber durch die Nähe oder Distanz zu Herkunfts- bzw. Aufnahmegemeinschaften beschrieben.⁴ Die Integrationsverläufe, die sich aus den beiden Modellen

3 Vgl. etwa Heitmeyer/Kühnel/Strobel 1999, S. 5; Sen/Sauer/Halm 2001, S. 214. Zum Begriff der Akkulturation insbesondere Berry 1992.

4 Vgl. Nauck/Steinbach 2001; Esser 2001.

ergeben, beruhen entsprechend auf unterschiedlichen Annahmen: Sind etwa bei Heitmeyer Inklusion - also die Möglichkeit gleichberechtigter Teilhabe bei Aufrechterhaltung kultureller Differenz - und Assimilation (also die Erreichung gleichberechtigter Teilhabe bei Aufgabe der Herkunftskultur) zumindest theoretisch gleichwertige Alternativen, weil Handlungsorientierungen und Teilhabechance als zumindest theoretisch-konzeptionell unabhängig voneinander aufgefasst werden⁵, ist die Annahme bei Esser eine grundsätzlich andere. Empirisch gelingt nachhaltige Sozialintegration nur auf der Grundlage assimilativer Muster, genauer: Erfolgreiche Prozesse der Akkulturation, Plazierung, Interaktion und der Identifikation sind interdependent. Insbesondere die erfolgreiche Plazierung kann eigentlich nur in der Aufnahmegesellschaft stattfinden - da die ethnische Community keine adäquaten Plazierungen in hinreichender Zahl bietet. Dies setzt jedoch Akkulturation und ein Mindestmaß an Interaktion voraus, womit im Anschluss auch die Identifikation mit der neuen Heimat verbunden sein sollte.

In der ethnischen Community laufen die Minoritäten vielmehr zunehmend Gefahr, sich in ethnische Mobilitätsfallen zu begeben, in denen sie höchstens schlechte und mittelmäßige Plazierungen erreichen können.⁶ Die "Entkopplung" insbesondere von Kulturations- und Plazierungsprozessen ist bei Esser nicht vorgesehen.⁷

Speziell für integrationspolitische Schlussfolgerungen, die aus den beiden Modellen abgeleitet werden können, sind diese Unterschiede sehr bedeutend - und für die Einschätzung der Folgen der Etablierung parallelgesellschaftlicher Strukturen für die Teilhabechancen derjenigen, die ihr angehören. Es stellt sich, anders formuliert, die Frage nach der Zwangsläufigkeit der Entstehung ethnischer Schichtung⁸ in multikulturellen

⁵ Heitmeyer/Kühnel/Strobel 1999, S. 5.

⁶ Esser 2001, S. 35-36.

⁷ Esser 2001, S. 63.

⁸ Nach Esser 1980. Ethnische Schichtung bezeichnet das Vorliegen systematischer vertikaler sozialer Ungleichheiten zwischen ethnischen Gruppen bei gleichzeitiger Gleichheit der Gruppen

Gesellschaften. Empirische Befunde zu Deutschland sprechen bisher für eine solche Zwangsläufigkeit. Z. B. hat Kecskes die sozialen Netzwerke türkeistämmiger Jugendlicher in Köln untersucht. Er kommt dabei zu der Schlussfolgerung einer ausgeprägten, im Jungerwachsenenalter noch zunehmenden ethnischen Schließung, innerhalb derer sich allerdings sehr unterschiedliche Einstellungen, Lebensstile und Identitäten etabliert haben.⁹ Letztendlich bestehe aber für die Mehrheit der Jungerwachsenen das Problem der Beschränkung auf das Positionierungssystem der eigenen Community, das im Vergleich zur Aufnahmegesellschaft nur marginale Plazierungen ermöglicht. Die türkischen Jugendlichen sind in der Mehrheit nicht assimiliert, in keinem Wortsinn. Kecskes misst, wie auch Esser, den "ethnischen Mobilitätsfallen" ¹⁰ große Bedeutung zu, da

das ethnische Positionssystem weniger differenziert ist als das Positionssystem der Aufnahmegesellschaft und dieses unterschichtet [... und] schneller das obere Ende erreicht [ist], das jedoch [...] noch immer einer marginalen Stellung entspricht.¹¹

Auch Glatzer zeigt in seiner Studie zum Integrationsstand von Jugendlichen mit italienischem und türkischem Migrationshintergrund, dass die sozialstrukturelle (Erwerbsbeteiligung, Haushaltseinkommen, Abiturientenquote, Wohneigentumsquote) und die sozialkulturelle Partizipation (deutsche Sprachkenntnisse, deutscher Medienkonsum, Fremdheitsempfinden) eng verknüpft zu sein scheinen und gleichgerichtet verlaufen.¹²

2. Türkische Parallelgesellschaft in NRW?

Eine Längsschnittuntersuchung

Die Frage nach der Entwicklung einer türkischen Parallelgesellschaft in

in sozialstruktureller Hinsicht.

⁹ Kecskes 2001, S. 180.

¹⁰ Wiley 1973.

¹¹ Kecskes 2001, S. 180.

¹² Glatzer 2004, S. 47-48.

Deutschland haben die Autoren des vorliegenden Beitrags durch eine Längsschnittuntersuchung zum interkulturellen Zusammenleben der türkeistämmigen Bevölkerung Nordrhein-Westfalens zu beantworten gesucht, wobei Meyers Indikatoren für die Existenz von Parallelgesellschaften durch unterschiedliche Merkmale operationalisiert wurden¹³.

Die Stiftung Zentrum für Türkeistudien befragt seit 1999 in jährlichem Abstand repräsentativ 1.000 erwachsene türkeistämmige Migranten zu ihren Wohnverhältnissen, interkulturellen Kontakten, Diskriminierungserfahrungen und der Nutzung eigenethnischer Infrastrukturen.

Die Daten sind geeignet, die von Meyer entwickelten Indikatoren für Parallelgesellschaften durch die Merkmale Religiosität (kulturelle Homogenität), Kontakte zu Deutschen (lebensweltliche Segregation), Organisationsgrade (Verdopplung von Institutionen), Diskriminierung (Freiwilligkeit von Segregation) und ethnische Quartiersbildung (Wohnraumsegregation) zu operationalisieren.

Obwohl sich die Befragung auf das Bundesland NRW beschränkt, dürften die Ergebnisse in ihren Grundtendenzen auch auf die Bundesrepublik insgesamt zu übertragen sein, da immerhin jede(r) dritte Türkeistämmige in NRW lebt.

Die These der Entwicklung zu parallelen Gesellschaftsstrukturen von Deutschen und Türken erhält im Ergebnis durch diese Längsschnittuntersuchung keine Nahrung. Vielmehr ist in denjenigen Bereichen, in denen sich eindeutige Trends im Untersuchungszeitraum abzeichnen, eine leicht zunehmende gesellschaftliche Durchmischung zu konstatieren. Allerdings sind die Identifikation mit dem Islam und damit auch die religiös-kulturelle Homogenität der Gruppe sowie die Empfindung von Diskriminierung im Untersuchungszeitraum gewachsen. Im Folgenden werden die Ergebnisse im Einzelnen skizziert.

Religiöse Homogenität

13 Halm/Sauer 2004. Das folgende Kapitel schreibt diese Untersuchung um die Daten des Jahres 2004 fort.

Erwartungsgemäß gehört die überwiegende Mehrheit der türkischen Migranten mit 95% dem muslimischen Glauben an. Von diesen stellen die Sunniten mit 90% wiederum die deutliche Mehrheit, 9% sind Aleviten und nur wenige gehören der schiitischen Richtung an. Diese Verteilung unterstützt die Annahme einer religiös-kulturellen Homogenität der Türcinnen und Türcen als eine Voraussetzung für die Entstehung von Parallelgesellschaften. Die Mehrheit der Befragten definiert sich nicht nur als "formal" dem Islam zugehörig, sondern auch emotional. Die Hälfte - 50% - sieht sich selbst als eher religiös und knapp jeder Fünfte - 22% - als sehr religiös. 24% fühlen sich selbst als eher nicht religiös und 4% als gar nicht religiös.

Der Vergleich der Anteile in den jeweiligen Kategorien zeigt, dass offensichtlich die Religiosität unter den Migranten im Zeitverlauf zunimmt. Der Anteil der sehr und eher Religiösen steigt 2004 zusammen auf 72%, im Jahr 2000 betrug er 57%. Darüber, ob dies eine Folge des 11. September und der Kriege in Afghanistan und Irak und einer mehr oder weniger erzwungenen Selbstpositionierung zum Islam ist, kann nur spekuliert werden. Bei mehrheitlicher Zugehörigkeit zum sunnitischen Islam ist die türkische Gesellschaft in Deutschland damit zwar nicht homogen, aber doch stark religiös geprägt - und diese Prägung hat im Untersuchungszeitraum linear und deutlich zugenommen.

Lebensweltliche Segregation

Die lebensweltliche und zivilgesellschaftliche Segregation als ein weiteres Merkmal von Parallelegesellschaften wird hier anhand der Häufigkeit interethnischer Freizeitkontakte indiziert. 44% der Befragten unterhalten enge, freundschaftliche Beziehungen zu Deutschen, im Rahmen derer man sich fast täglich (23%) oder häufig - mindestens einmal in der Woche - (20%) trifft. Ein weiteres knappes Viertel hat manchmal Freizeitkontakt zu Deutschen mit mindestens einem Treffen im Monat. 35% haben jedoch nur wenig Kontakte, 16% treffen sich selten (mehrmals im Jahr) und 19% so gut wie nie mit Deutschen auf privater Ebene. Im Zeitvergleich zeigt sich eine leichte, jedoch

stetige Zunahme der interkulturellen Freundschaftsbeziehungen

Zivilgesellschaftliche Segregation

Die Einbindung in gesellschaftliche Organisationen ist in der türkischen Community weniger ausgeprägt als bei Deutschen, hat aber in den letzten Jahren zugenommen.¹⁴ Zum Teil gliedern sich die Migranten in das intermediäre System der Mehrheitsgesellschaft ein, zum Teil hat sich eine eigenethnische Infrastruktur etabliert. Inzwischen existieren in nahezu allen gesellschaftlichen Bereichen türkische Organisationen und Institutionen. Sind sie aber eine Dopplung der aufnahmegesellschaftlichen Angebote, wie sie eine Parallelgesellschaft kennzeichnen würden?

Insgesamt sind 42% der Befragten in keinem Verein organisiert. 19% sind nur in einem deutschen und 18% sowohl in einem deutschen als auch in einem türkischen Verein. Somit sind mehr als ein Drittel (37%) aller Befragten auch in einem deutschen Verein Mitglied. Neben den 19%, die sowohl in einem deutschen als auch in einem türkischen Verein organisiert sind, gehören 22% nur einem türkischen Verein an. Der Vergleich mit den Ergebnissen der letzten Jahre zeigt, dass der Anteil der Nichtorganisierten sinkt. Zugleich nimmt 2003 und 2004 die ausschließliche Mitgliedschaft in türkischen Vereinen wieder ab, nachdem sie im Jahr 2002 leicht angestiegen war. Kontinuierlich steigt der Anteil derer, die sowohl in deutschen als auch in türkischen Vereinen oder Verbänden organisiert sind. Auch der Anteil der in deutschen Verbänden Organisierter steigt leicht an. Diejenigen deutschen Organisationen, in denen die Migranten mit 17% am häufigsten anzutreffen sind, sind die Gewerkschaften. An zweiter Stelle folgen mit 16% die Sportvereine. Die Gewerkschaftsmitgliedschaft ist traditionell unter allen "Gastarbeiternationen" stark ausgeprägt. Unter den türkischen Vereinen liegt das Schwergewicht eindeutig im kulturellen und religiösen Bereich. 12% gehören einem Kulturverein und 22% religiösen Gemeinschaften an. Generell betrachtet gründet sich ein zentraler Teil der Mitgliedschaft in türkischen

¹⁴ Diehl 2001.

Organisationen auf das Bedürfnis religiöser und kultureller Anbindung, das deutsche Organisationen nicht erfüllen können. Damit Erfüllen die türkischen Organisationen aber eine Komplementär- und eben keine Dopplungsfunktion zu deutschen Angeboten.

Diskriminierungserfahrungen - Freiwilligkeit der Segregation

Integration setzt voraus, dass die aufnehmende Gesellschaft die Zuwanderer auch an Ressourcen und Prozessen teilhaben lässt. Ein geeigneter Indikator für die Freiwilligkeit von Abgrenzung ist das Diskriminierungsempfinden. Insgesamt gaben 77% der Befragten an, im Alltag die Erfahrung ungleicher Behandlung von Deutschen und Ausländern gemacht zu haben: 11% in einem bestimmten Lebensbereich und 66% schon in unterschiedlichen Lebensbereichen. Auch 1999 lag eine Diskriminierungsquote von 65% vor, dabei 52% mehrfach und 14% einmal. Im Jahr 2001 war der Anteil auf 71% gestiegen, 2002 lag er ebenso wie 2003 bei 80%. Ob es sich bei dieser zwischenzeitlichen Zunahme der Diskriminierungswahrnehmung um eine gestiegene Sensibilisierung oder Empfindlichkeit der Migranten handelt oder um einen Anstieg der tatsächlichen Ungleichbehandlung, kann hier nicht geklärt werden. Dennoch ist eine erschreckend hohe Diskriminierungsperzeption zu konstatieren, die im Zeitvergleich zunächst deutlich zugenommen hat und seit dem letzten Jahr wieder sinkt. Wie der steigenden Religiosität liegt auch hier nahe, einen Zusammenhang zur Debatte um den Islam im Zuge des 11. September 2001 herzustellen, was allerdings Interpretationssache bleibt. Die Bereiche, in denen am häufigsten Diskriminierung empfunden wird, sind diejenigen, in denen generell ein hohes Maß an ökonomischer oder sozialer Konkurrenz und Konflikte um knappe Ressourcen herrschen: Rund die Hälfte der befragten Migranten gaben an, bereits am Arbeitsplatz (57%), bei der Wohnungssuche (49%) und bei der Arbeitssuche (48%) diskriminiert worden zu sein.

Siedlungsräumliche Segregation

Mehr als die Hälfte der Befragten (58%) wohnt in überwiegend deutsch geprägten Gegenden. 15% leben in gleichmäßig gemischten Vierteln und ein Fünftel in überwiegend von Türken bewohnten Stadtteilen. Der Anteil von 21%, die in überwiegend türkisch geprägten Gegenden leben, deutet aber doch darauf hin, dass sich zumindest in einigen Stadtteilen ethnisch verdichtete Wohnquartiere herausgebildet haben.

Vergleicht man den Befund von 2004 mit den Zahlen der Vorjahre, ist kein eindeutiger Trend erkennbar. Unter dem Vorbehalt, dass das Untersuchungsdesign keinen Schluss auf Kausalitäten zulässt, wird bei der Untersuchung des Zusammenhangs von ethnischer Zusammensetzung der Wohngegend und der Zufriedenheit mit den Wohnverhältnissen und dem sozialen Umfeld sichtbar, dass Befragte, die in deutschen Wohngegenden leben, zufriedener sind als Befragte, die in türkisch geprägten Gegenden leben, was darauf hindeutet, dass es sich nicht immer um eine freiwillige Segregation handeln sollte. Unzufriedenheit mag indessen nicht nur mit der ethnischen Zusammensetzung, sondern auch mit der generellen Situation der jeweiligen Quartiere zusammenhängen, da ethnische Kolonien häufig in Stadtteilen mit niedriger Wohnqualität angesiedelt sind.¹⁵

3. Die Integrationsperspektive der Angehörigen von Parallel-gesellschaften

Wie verteilen sich die beschriebenen Merkmale aber auf die Individuen in der türkischen Community in NRW? Inwiefern haben einzelne Gruppen tatsächlich so etwas wie parallele Subgesellschaften gebildet? Um die Angehörigen einer türkischen Parallelgesellschaft zu identifizieren und so ihre Integrationsperspektive zu untersuchen, mussten für die hier verwendeten Indikatoren Grenzwerte festgelegt werden, jenseits derer die Befragten als segregiert oder nicht segregiert definiert werden.¹⁶

¹⁵ Friedrichs/Blasius 2000, S. 195.

¹⁶ Folgende Merkmale wurden für die Bereiche als Segregationskennzeichen definiert: Religion: sehr und eher religiös; Lebenswelt: nie und selten Freizeitbeziehungen zu Deutschen; Zivilgesellschaft:

Die Datenanalyse zeigt, dass nur eine kleine Gruppe von einem Prozent mit Blick auf alle fünf Indikatoren der Parallelgesellschaft die definierten Segregationsgrenzwerte überschreitet. 4% überschreiten diese Werte bei vier Merkmalen und 18% in drei Bereichen. Ein Drittel überschreitet in zwei Bereichen und ebenso viele in einem Bereich die Grenze zur Segregation. Gut jeder zehnte türkeistämmige Migrant ist hinsichtlich keines der Merkmale segregiert.

Diejenigen Befragten, die in drei oder mehr Bereichen die Grenzwerte überschreiten, wurden anschließend in einer Gruppe, die als potenziell segregiert gelten kann, zusammengefasst, diejenigen, die in zwei oder weniger Bereichen die Grenzwerte überschreiten, zur Gruppe der nicht Segregierten. Daraus ergibt sich ein Anteil von 77,5%, der als nicht segregiert gelten kann, und ein Anteil von 22,5%, der als tendenziell segregiert einzustufen ist, bzw. vermehrt parallelegesellschaftliche Strukturen ausbildet.

In der Gruppe der tendenziell in parallelegesellschaftlichen Strukturen Lebenden sind Migranten ab 60 Jahre und solche mit schlechten Deutschkenntnissen deutlich überrepräsentiert. Betrachtet man die Zusammenhänge, stehen Deutschkenntnisse und die berufliche Stellung am stärksten in Zusammenhang mit der Segregation. Aber auch Alter und Aufenthaltsdauer, ebenso wie das Land des Schulbesuchs und die formale Schulbildung in Deutschland, die berufliche Stellung und das Haushaltseinkommen stehen in Zusammenhang mit der Segregation. Männer und Frauen unterscheiden sich hingegen kaum.

Mit zunehmendem Alter steigt der Anteil derjenigen, die in mindestens drei der fünf Bereiche parallelegesellschaftliche Tendenzen aufweisen. Besonders groß und mit deutlichem Abstand zur nächstjüngeren Gruppe ist der Anteil der ab 60-Jährigen. Entsprechend sind Erstgenerationsangehörige überproportional häufig unter den Segregierten, aber auch die als Erwachsene

Organisation ausschließlich in türkischen Vereinen; Freiwilligkeit von Segregation: keine Diskriminierungserfahrung; Wohnraum: Leben in Vierteln mit überwiegend türkischer Bevölkerung

nachgereisten Ehepartner der zweiten Generation sind hier überrepräsentiert, wodurch sich der Alterszusammenhang verwischt. Angehörige der zweiten Generation, die in Deutschland geboren oder aufgewachsen sind, sind seltener unter den Angehörigen der Parallelgesellschaft zu finden.

Am sichtbarsten ist der Zusammenhang von Segregation mit den Deutschkenntnissen. Bei sehr oder eher schlechten Deutschkenntnissen ist die Wahrscheinlichkeit, in parallelgesellschaftlichen Strukturen zu leben, deutlich größer als bei guten oder sehr guten Deutschkenntnissen. Einfluss auf die Tendenz zum Leben in Parallelgesellschaften haben aber auch das formale Bildungsniveau, das in Deutschland erworben wurde, sowie die berufliche Stellung. Migranten, die nur eine geringe formale Bildung aufweisen oder als Arbeiter tätig sind, sind häufiger unter den Segregierten anzutreffen als Migranten mit hohem Bildungsniveau und Angestellte. Entsprechend sind Migranten mit einem niedrigen Einkommen eher prädestiniert, sich in parallelgesellschaftlichen Strukturen zu bewegen, als Migranten mit einem höheren Einkommen.

4. Fazit und Diskussion

Unter unseren Befunden ist die anwachsende Religiosität das einzige Merkmal einer Parallelgesellschaft, das im Untersuchungszeitraum tatsächlich linear in Richtung der Entwicklung eben parallelgesellschaftlicher Strukturen weist. Damit ist die große Bedeutung, die dem Dialog mit dem Islam und der Integration der Muslime in den letzten Jahren zugewiesen wurde, durchaus berechtigt. Alle anderen Merkmale zeigen jedoch kein Anwachsen parallelgesellschaftlicher Strukturen.

Allerdings zeigen die segregiert in Parallelgesellschaften lebenden Individuen eine schlechtere soziale Platzierung, gemessen am beruflichen Status und dem Einkommen, als diejenigen außerhalb parallelgesellschaftlicher Struktur, und sie haben aufgrund schlechter Deutschkenntnisse und geringerer formaler Qualifikation schlechtere Teilhabechancen. Allerdings ist die Varianz bezogen auf die nicht Segregierten

nur gering, was im generell geringen Teilhabeniveau begründet sein dürfte. Somit liegt die beste Vorsorge gegen die Entstehung ethnischer Schichtung in der Qualifizierung sowohl der jungen Migranten als auch der Neuzuwanderer, da Kulturation sich mit Blick auf unsere Daten als deutlich im Zusammenhang mit der gesellschaftlichen Platzierung, also der Teilhabedimension von Integration, erweist. Zugleich zeigt die von uns untersuchte Gruppe aber auch, dass mit Blick auf die Türkinnen und Türken nicht davon ausgehen ist, dass die Segregation bzw. das Leben in Parallelgesellschaften, verstanden als auf bewussten Entscheidungen beruhender Rückzug von der Aufnahmegesellschaft, nur sehr bedingt mit mangelhafter Teilhabe im Zusammenhang steht. Es gibt vielmehr in großer Zahl Türkeistämmige, die sich mit Deutschland identifizieren und intensiv mit der Aufnahmegesellschaft interagieren, ohne es jedoch zu adäquaten gesellschaftlichen Platzierungen zu bringen. Ganz stark vereinfacht ausgedrückt: Die vorgestellten Daten sprechen dafür, dass es bei der Integration der Türkeistämmigen eher an Möglichkeiten als am Willen der Betroffenen fehlt.

<Literatur>

- Berry, John W., Acculturation and Adaption in a New Society. In : International Migration 30 (1992), S. 69-85.
- Diehl, Claudia, Die Partizipationsmuster türkischer Migranten in Deutschland: Ergebnisse einer Gemeindestudie. In: Zeitschrift für Ausländerrecht und Ausländerpolitik, Heft 1/2001, S. 29-35.
- Esser, Hartmut, Integration und ethnische Schichtung. Gutachten für die Unabhängige Kommission "Zuwanderung".
- Friedrichs, Jürgen/Jörg Blasius, Leben in benachteiligten Wohngebieten. Opladen 2000.
- Glatzer, Wolfgang, Integration und Partizipation junger Ausländer vor dem Hintergrund ethnischer und kultureller Identifikation.

- Ergebnisse des Integrationssurveys des BiB. In: Materialien zur Bevölkerungswissenschaft, Heft 105c, 2004.
- Halm, Dirk/Martina Sauer**, Das Zusammenleben Deutschen und Türken in NRW. Entwicklung einer Parallelgesellschaft? In: WSI-Mitteilungen 10/2004, S. 547-553.
- Hämmig, Oliver**, Zwischen zwei Kulturen. Spannungen, Konflikte und ihre Bewältigung bei der zweiten Ausländergeneration. Opladen 2000.
- Heitmeyer, Wilhelm**, Für türkische Jugendliche in Deutschland spielt der Islam eine wichtige Rolle. Erste empirische Studie: 27 Prozent befürworten Gewalt zur Durchsetzung religiöser Ziele. In: Die Zeit, 23.08.1996.
- Heitmeyer, Wilhelm/Wolfgang Kühnel/Rainer Strobel**, Junge Aussiedler zwischen Assimilation und Marginalität. Abschlussbericht an das Ministerium für Arbeit, Soziales und Stadtentwicklung, Kultur und Sport NRW. Düsseldorf 1999, S. 5.
- Meyer, Thomas**, Parallelgesellschaft und Demokratie; in: Meyer, T./R. Weil (Hrsg.): Die Bürgergesellschaft. Perspektiven für Bürgerbeteiligung und Bürgerkommunikation. Bonn 2002, S. 343-372
- Kecskes, Robert**, Die starken Gründe unter sich zu bleiben. Zur Begründung und Entstehung ethnisch homogener sozialer Netzwerke unter türkischen Jugendlichen. In: Zeitschrift für Türkeistudien 1/2 2001, S. 161-185.
- Nauck, Bernhard/Anja Steinbach**, Intergeneratives Verhalten und Selbstethnisierung von Zuwanderern. Gutachten für die Unabhängige Kommission "Zuwanderung".
- Sen, Faruk/Martina Sauer/Dirk Halm**, Integration oder Abschottung? Zur Situation türkischer Zuwanderer in Deutschland. In: Zeitschrift für Ausländerrecht und Ausländerpolitik 5/2001 (Nomos, ISSN 721-5746), S. 214-220.
- Wiley, Norbert F.**, The Ethnic Mobilty Trap and Stratification Theory. In: Peter I. Rose (Hg.): The Study of Society. An Integrated Anthology. 3. Aufl. New York 1973, S.400-411.

